

『韓国語教育研究』(第11号) 別刷

ISSN 2186-2044

【研究論文】

탈식민적 문학사 기술의 가능성 고찰
-宋惠媛의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聲なき聲のポリフ
オニ-』를 중심으로-

方 閔濟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1年9月

탈식민적 문학사 기술의 가능성 고찰 -宋惠媛의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聲なき聲の ポリフォニー』를 중심으로-

方 閔濟

宋惠媛의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は、1945年から1970年まで在日朝鮮人文学の歴史を通時的に記述した最初の在日朝鮮人文学史である。この著書は、既存の在日朝鮮人文学史認識で通用していた、時代区分及び起点設定から離れ、独自の見方を示すという点で、在日朝鮮人文学史研究に於いて大きな意味を持つ。著者はこの著書を通じて、在日朝鮮人内部の言語葛藤そのものに注目し、民族/国家や言語ではなく、ナショナリズムによって排除され、抑圧された周辺部の文学を復元している。この為に著者は、日本語と朝鮮語を同等の位置に置き、女性の朝鮮語の作文を重要な文学史的叙述対象に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文学史の認識と記述態度は、「脱植民主義的文学史」という新しい文学史の可能性を開いている。しかし、宋惠媛の文学史は、在日志向が強く表れた70年代以降の在日朝鮮人文学を、完全に解明していないという点で、依然として未完の文学史とも言えるだろう。70年代以降の在日朝鮮人の人生と文学が、また違う形の脱植民地支配の様相という点で、これを統合していく作業が、脱植民地的文学史記述の今後の課題として残っている。

1. 머리말

문학사가 근대국민국가 체제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통념이다. 문학사의 기술 목적은 문학의 역사를 통하여 문학작품과 그것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주체의 집단정체성을 가시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사란 필연적으로 한 국가의 역사 안에 귀속되며, 여기서 정체성이란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호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고한 정체성의 구축과정에는 누수와 균열의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재일조선인문학사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민족문학사의 기술방식을 따를 수 없는 역사적·사회적 현실이 엄존한다. 우선, 재일조선인문학은 창작 언어 선택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불일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한과 일본의

경계에서 작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국가정체성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일조선인의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네이션 스테이트(nation-state) 내부에서 견고하게 구축된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관점과 기술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들 텍스트를 읽는 과정 또한 이와 같은 관점과 인식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재일조선인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시기구분, 기점론, 범주론 등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재일조선인문학사 기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재일조선인문학은 재일조선인이 쓴 문학을 지칭한다. 단순명료한 정의이지만 이러한 재일조선인문학에는 식민종주국이었던 일본에서 식민지배와 해방, 한국전쟁과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수난의 여정을 겪으며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그들의 지난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이들의 문학사를 한국문학 또는 일본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태도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표면적으로는 문학사 기술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민족정체성을 표상하고 있느냐는 문제와 사용언어가 자신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필연적인 상관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국가 내부로 손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이들의 경계적 정체성은 재일조선인문학이 일본문학이나 한국문학과 다른 고유한 지점을 생산하는 새로운 인식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재일조선인문학 연구는 이러한 디아스포라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재일조선인문학사가 기술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왔다.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주로 작품론이나 작가론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여기에 특정 시기¹나 세대²의 문학적 특징에 주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창작언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일본어 문학과 조선어(한국어) 문학으로 구분하였고,³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문학을 독자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본문학과 한국문학이라는 네이션(nation)의 범주 안으로 포섭시키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우선, 일본문학계에서는 모어와 국어의 분리, 모국과 조국의 분리라는 재일조선인의 경계성은 외면한 채, 그들의 문제를 인간 일반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환원시켜 버림으로써 재일조선인문학을 일본문학

1 이한창 「재일 교포문학의 주제연구」, 『일본학보』 29, 한국일본학회, 1992.
 「재일 교포문학의 작품성향 연구-정치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2 유숙자, 『在日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3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연구』, 국학자료원, 2007.
 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유숙자, 위의 책. 2000.
 이한창, 앞의 논문, 1996.
 林浩治, 『戦後非日文学論』, 新幹社, 1997.
 布袋敏博, 「해방 이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47,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02.
 한승옥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민족문화적 성격연구』, 국학자료원, 2007.

의 이종(亞種)으로 다루곤 한다. 또한, 한국문학계에서는 “재일조선인에게 ‘동포’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문학을 국민/민족문학의 범주 내로” 포섭하려는 경향을 보인다.⁴ 이러한 ‘네이션’ 중심의 접근 방식은 재일조선인문학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네이션적 욕망에 따라 취사선택함으로써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일본문학사⁵ 혹은 한민족 문학사⁶ 안에서 다루며 각각의 자국문학사의 영역 확장을 도모하는 경향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네이션’ 중심의 시각은 재일조선인문학을 국가 혹은 민족문학사의 하위 영역으로 포섭함으로써 자국문학사의 범주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적 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재일조선인문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문학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탈(脫)네이션적 관점’⁷이 요구된다. 재일조선인문학을 바라보는 ‘탈(脫)네이션적 관점’이란 ‘일본문학’ 내지는 ‘한민족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셔널리즘에 내재된 제국주의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식민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탈(脫)네이션적 관점’에서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읽어 나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텍스트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까지의 재일조선인문학의 역사를 다룬 송혜원의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⁸이다. 이 텍스트는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재일조선인문학의 ‘탈식민지화 과정’을 통사적으로 기술한 연구서의 성격을 띤 최초의 문학사로 평가 받고 있다.⁹ 송혜원에 따르면 ‘탈식민지화의 과정’이란 해방 초기 두드러진 반제국주의

4 고봉준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기억’과 ‘망각’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008, pp. 28~29 참조.

5 安宇植 「在日朝鮮の文学」, 『岩波講座日本文学史』 第14巻, 岩波書庫, 1997.

6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종희와 홍기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재일조선인문학을 창작언어로 구분해왔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재일조선인이 쓴 한국어 문학과 일본어 문학 모두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한국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재일조선인을 ‘재일 한국인’ 혹은 ‘재일 한민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민족이라는 인식의 범주 안에서만 재일조선인문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김종희 외, 『한민족 문학사 2 권, 역락, 2015; 홍기삼, 『재일한국인문학』, 숲, 2001)

7 고봉준은 탈네이션적 관점을 네이션체제에 근거한 근대문학이 볼 수 없는 맹목의 지점을 성찰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재일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네이션적인 이해방식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학의 방법론이라기 보다는 해석의 정치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고봉준, 위의 논문, pp.29~30 참조)

8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이 저서는 송혜원 본인이 직접 번역한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2019)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출간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2014년에 출간된 일본어판을 대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9 윤송아는 “식민지기 혹은 해방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재일조선인 문학의 흐름과 공식적 축적물을 종합적으로 아우른 문학사가 부재하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해방 이후 본격화된 재일조선인 문학의 발자취를 폭넓게 천착해가는 송혜원의 저작은 남다른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텍스트가 “식민지 경험과 해방 이후 구종주국 일본에서의 새로운 차별과 탄압에 맞선 지속적인 탈식민지화의 과제가 재일조선인 문학의 가장 중요

경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국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이 그리는 탈식민주의의 지향점이 다양하게 분화되었기 때문이다.¹⁰ 즉, 재일조선인문학의 탈식민지화의 과정은 해방 이후 획일화되는 내셔널리즘적 지배구조로부터 탈피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일조선인문학의 탈식민지화는 일국(一國) 혹은 민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탈네이션적 관점’을 필요로 한다. 또한 동시에 재일조선인이 처한 일본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식민화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탈식화의 관점’이 요구된다. 송혜원의 문학사는 이러한 두 층위의 관점을 내밀하게 연관시키면서 탈식민화의 과정으로서 재일조선인문학사를 포착해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송혜원의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의 체제와 기술양상을 살펴보고, 탈식민적 문학사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탈네이션적 관점과 탈식민적 관점에서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읽는 독법은 기존의 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문학 연구의 한계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재일조선인이 처한 현실을 보다 예각화하고 재일조선인문학이 갖는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향후 재일조선인문학을 포함하여 재일조선인문학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독법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화두임을 전제로 하면서, 조선어와 일본어라는 창작언어의 문제 및 한국, 공화국(북한), 일본, 세 국가의 문학제도 및 지형도 안에 놓인 재일조선인 문학의 위치성을 고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윤송아의 평가는 송혜원의 저서가 가진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평이라는 글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소개를 충실히 하고 있으나, 텍스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윤송아, 「이언어(二言語)의 장(場)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들의 향연 -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 に一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 『동국대학교 일본학』 42,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p.243)

10 “‘해방’ 당시 재일조선인들에게는 반(反)제국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받은 입장으로서의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들을 억압했던 적을 극복하고 민족 해방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꾸며 문학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해방’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던 듯하다. 다만, 작가들의 탈식민지화에 대한 회구가 모두 일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조국’이 분단된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천편일률적인 내셔널리즘상을 그릴 수도 없었다. 고향을 마음의 의지로 삼았던 사람도 있었고, 남과 북의 ‘조국’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조국’에 희망을 걸지 않고 일본 안에 적응하여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의 탈식민지화라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宋惠媛, 위의 책, p.6)

2. 송혜원 문학사의 체제와 기술양상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출간한 것으로¹¹, 탈식민적 관점에서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문학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재일조선인문학사이다. 이 문학사는 기존의 내셔널리즘적 문학사가 보이는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의 소산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기점 설정, 범주 설정, 시기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1945년부터 1970년까지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그 경계를 넘나든 재일조선인의 문학활동을 다루고 있다. 먼저 목차를 통해 이 저술의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目次-

序章 文学史を書く

- 一 「在日朝鮮人文学史」の不在
- 二 日本文学, 日本語文学, それとも…
- 三 クリシェを問い直す
- 四 文学史を構築する

第一章 源流としての女性文学史——識字・ライティング・文学

- 一 なぜ女性たちからはじめるのか
- 二 文字獲得への果てしない道のり
- 三 エンピツをにぎって
- 四 物語の系譜を辿る

五 書かれたものと書かれなかったもの

第二章 文学史の主流——在日民族文学運動の主流

- 一 脱植民地化に立ちはたかる壁
- 二 祖国分断の衝撃
- 三 共和国文学化へとひた走る
- 四 一五年後に花開いた朝鮮(語)文学
- 五 唯一思想体系始動の波紋

第三章 いくつもの水流——オルタナティブな文学行為

- 一 植民地作家の後日譚
- 二 “解放”直後の文化勢力図
- 三 新生韓国をめぐる渦巻く思惑
- 四 四・一九革命の差響——共振と反作用と
- 五 軍事独裁体制の強化, 座礁する文学

11 宋惠媛의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岩波書店, 2014)는 저자의 히토즈바시대학(一橋大学) 박사학위 논문인 「재일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1970년」(2011)을 수정하여 출간한 것이다.

六 組織から遠く離れて
第四章 海を渡る文学史——越境と離散を抱いて
一 植民地以後も途切れぬ人流
二 “不法” 入国者との淡い境界
三 朝鮮戦争がもたらしたもの
四 南からやって来た亡命者
五 檻の中で
六 漂流する亡命作家——金時鐘, 金在南, 尹学準
七 一九五九年, 北への大移動
八 日本と韓国の距離
九 終着地なき航路
終章 在日朝鮮人文学, あるいは言語のせめぎあう場
一 日本語と朝鮮語のあわいで
二 翻訳について
三 ことばの呪縛は解けるか
作者経歴一覧
あとがき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문학사 기술의 관점을 상술하고 이에 입각하여 비주류 문학과 주류문학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문학사의 전개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1945년에서 1970년 사이의 주요 경향을 주제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재일조선인문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학사는 주제 중심의 문학사로서 해당 시기의 주요 문학 현상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일반적인 문학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은 시기구분에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집단적인 활동을 중심에 두고 서술되어 있다. 우선, 시기구분에 대해 살펴보자. 송혜원은 재일조선인문학사의 시작을 1945년으로 보았다. 저자는 이러한 시기 구분의 근거로 식민지 시기의 ‘조선인 작가’가 처한 조건과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 작가가 처한 조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기존의 문학사가 설정한-필자 삽입) 김사량을 재일조선인문학사의 기점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식민지기 일본에 있어 ‘조선인 작가’의 조건과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 작가의 조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지배자의 언어=일본어라는 고질병을 껴안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언어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었다.¹²

12 宋惠媛, 앞의 책, p.7.

저자는 해방이라는 조건이 단순히 언어선택의 자율성이 확보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해방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선택의 문제와 결부되는 이질적 상황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일본어 사용이 강제되었던 식민지 시기와는 달리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조선어 사용의 자유가 생겼지만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하여 조선어 글쓰기가 능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해방 이전의 일본어 글쓰기가 자기 내부의 민족정체성을 억압하였다면, 해방 이후에는 조선어 글쓰기가 자신의 표현 욕구를 제한하는 갈등 요인이 된 것이다.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들은 생존과 민족정체성 유지라는 갈림길에서 일본어나 조선어, 둘 중 하나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¹³ 송혜원이 재일조선인문학의 기점을 해방으로 삼은 근거는, 조선어 창작과 일본어 창작을 오가며 창작활동을 해 나갔던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 해방은 이언어(異言語)적 갈등과 분열을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문학사의 기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저서의 시기설정에서 주목할 점은 재일조선인문학사의 종점을 197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송혜원은 70년대에 이르러 “냉전 구도라는 세계정세,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일본사회의 변화라는 현실 앞에서 탈식민지화의 의미가 ‘해방’ 당초와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지적한다. 1967년 “북한의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과 이에 대한 “총련 내부의 치열한 비판사업이 시작”¹⁴되면서 재일조선인 작가들은 둘로 나뉘게 되었고, 일본문학계로의 이탈도 점차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¹⁵ 따라서 저자는 재일조선인들의 ‘재일지향’이 강해진 것도 이 시기이며, 그들은 일본어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여 “해방 이후부터 70년까지 25년간을 일본어와 조선어가 뒤섞여 난무하는 탈식민지화의 언어 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시기설정은 1930년대 혹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대를 달리 하면서 뚜렷한 정체성의 변모양상을 드러낸 재일세대론¹⁷의 연속성을 부정하려는 인식이라는

13 “식민지기가 황국신민화를 위해 조선어 말살=일본어 강요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였기에 조선어 창작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다면, 해방 이후에는 비록 원활히 진전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어 부활이라는 명목 하에 총련 주도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宋惠媛, 위의 책)

14 1967년부터 조선노동당위원회의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체문학론이 북한문학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총련 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문예동의 문예창작 방침 또한 주체문학론을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이어가던 상당수의 작가들이 총련을 빠져나갔고, 총련 내부에서는 총련을 빠져나간 작가들을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개인이기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을 가진 이들이라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宋惠媛, 앞의 책, pp.199~203 참조)

15 宋惠媛, 위의 책, p.9.

16 宋惠媛, 위의 책, p.11 참조.

17 재일조선인문학의 세대 구분은 논자에 따라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송혜원이 언급하고 있는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의 세대론 가운데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이미 일본 문단 내에서 나름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2~3세대의 재일 문학을 일본문학의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본문학사 안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을 구획하고 있는 기존의 세대론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기술 전략으로 보인다. 저자가 이처럼 기존의 세대론을 부정하고자 한 이유는 기존의 세대론이 일본 문단에 알려진 재일조선인문학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본 문학 안에서 문학적 성격이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재일조선인 내부의 문체와 남북한의 사회적 변모와 관련한 재일조선인문학의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송혜원이 재일조선인문학의 전개 양상을 1945년~1970년까지 25년의 시간에 한정하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네이션의 범주를 넘어 국내외적 정세와 관련된 재일조선인문학 내부의 양상들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과 맞닿아 있다.

다음으로, 송혜원의 문학사가 갖는 기술상의 특징은 개인보다는 문학단체의 활동을 중심에 두고 문학사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송혜원이 재일조선인문학단체의 활동에 주목하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일조선인 문단 내부로부터 시작된 재일조선인문학사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저술에서 문학사의 원류로 삼은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자발적인 식자학습과 문학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들의 문학활동이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집단을 염두에 둔 기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재일조선인문학의 다양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문학단체 안에서 활동한 이름이 알려진 작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글쓰기와 비주류 작가들의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문학계나 한국문학계의 상투적인 독법과 이를 충족시키는 몇몇 작가와 작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와 비주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이 저서는 단체활동을 중심에 두고 문학사를 기술하다 보니 단체의 해체 이후에 대해서 문학사적 연관성을 기술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45년에서 1970년까지의 의도된 시기설정이 7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문학(재일 문학)을 단절시키

다. 이소가이는 재일조선인문학의 변천 과정을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크게 세 시기로 나눈다. “1기는 해방 전후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친, 식민지 체험 극복과 정치적인 계절의 시대”이며, “2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친 ‘재일지향’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주체 회복의 시대”이고, “3기는 1980년대 말기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과 다양한 아이덴티티 탐구의 시대”이다. “각각의 시기는 제1문학세대, 제2문학세대, 제3문학세대의 활동과 대응한다.” 여기서 이소가이는 문학세대의 시기 구분이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 세대구분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 이유는 “제1기의 작가들 중에 제2, 3기에 활동한 사람들이 있고, 제2기의 작가 중에서는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온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이소가이 지로, 『변모와 계승』,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재일 동포 문화과 디아스포라』, 제이앤씨, 2008, pp.7-8)

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저자의 지적대로 197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문학은 ‘재일’문학 이라고 명명된 ‘재일지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70년 이후에도 여전히 언어와 민족에 대한 고민을 가진 작가들이 존재하였고, 재일지향 또한 재일조선인 정체성의 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1970년대 이후 2~3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재일조선인문학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재일’문학 작가들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일본어 혹은 조선어의 자장(磁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내적 갈등을 문학작품으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송혜원 문학사의 시기구분은 기존의 민족정체성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내셔널리즘적 문학사의 기술방식을 탈피하고 탈식민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기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일국(一國)의 범주 안에서 일본문학 혹은 한국문학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강화에 공모해 왔던 종래의 세대론, 정체성론, 기점론을 비판하고, 재일조선인사회를 둘러싼 한국, 북한, 일본이라는 다자적 관계망 안에서 형성된 이언어 간의 갈등이라는 재일조선인문학의 내재적 동인에 주목하며, 이를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송혜원의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는 1945년부터 1970년 사이의 재일조선인문학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재일조선인들의 다양한 문학활동과 비주류 문학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재일조선인문학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언어 혹은 민족을 기준으로 재일조선인문학을 바라보는 내셔널리즘적 시선에서 벗어나 재일조선인의 자기표현으로서의 언어활동과 갈등양상을 탈식민화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재일조선인문학 내부로부터의 제 양상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시각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저술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저술은 민족과 언어라는 기준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존 문학사의 통념을 깨트리고, 재일조선인들의 감춰진 목소리들을 발굴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탈식민적 문학사 쓰기의 의의와 한계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민족을 단위로 삼는 문학사는 국가와 민족의 수립과 발생 및 그 사적 변천의 역사에 문학의 변천사를 대입시키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고자 한 송혜원의 저술은 재일조선인문학을 내셔널리즘의 문학사가 배제하고 억압해 온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조명하려는 시각과 내셔널리즘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난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

(1) 새로운 문학사의 목적은 새로운 정전(正典)을 제시하고 작품을 서열화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재일조선인문학의 ‘민족적 정체성’을 과시하려는 데 있지 않다. 역사의 음지에 버려져 있는 작품에 숨결을 불어넣어 그것들과 대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할 것이다.¹⁸

(2) 작가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재일조선인문학이 자기정체성을 묻는/되묻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는 일본과 한국 독자들의 (내셔널)아이덴티티의 유지와 강화에 너무도 손쉽게 공모해 왔다는 점이다. 즉 재일조선인문학 자체가 내재적으로 논의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⁹

이와 같은 송혜원의 저술의도에 따라 이 저술이 과연 문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종래의 문학사의 기술과는 달리 시대 구분이나 문학계에 알려진 작가나 작품에 대한 나열이나 설명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사 주변부에 숨어있는 목소리를 끌어내어 체계적으로 서술한 연구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저자 본인이 서장에서 “지금부터 써 내려가는 문학사의 목적이” 새로운 정을 제시하거나 작품을 서열화하여 배치하여 재일조선인문학의 ‘민족적 정체성’을 과시하지 않고, 주변부에 버려진 목소리를 발굴하고, 그것들과 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 본인인 문학사 저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따라서 본 저술을 하나의 대안적 문학사 저술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송혜원이 이 문학사를 쓰기에 앞서 1880년~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일본에서의조선어 문학활동의 역사를 기술한 바 있는 임전혜의 경우, 주로 장혁주, 홍종우, 김사랑, 김달수 등 일본 문단에서 평가받은 작가와 작품을 언급하며 재일조선인문학의 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송혜원은 주류 문단 권력에서 밀려난 비주류 재일조선인문학에 주목하고 재일조선인문학사의 전체상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송혜원은 주류 재일조선인문학 작품을 일본문학 혹은 한국문학의 일부로 여겨 온 연구관행에서 벗어나 재일조선인문학을 한국이나 일본문학의 하위 범주로 바라보는 외부적 시선이 아닌 재일조선인 내부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의 위치를 규명하고 언어내셔널리즘을 넘어서는 경계의 문학으로서 재일조선인문학의 의미를 복원하여 재일조선인문학사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어 작품과 조선어 작품을 나누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언어 사이에서 작가와 작품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 후 재일조선인문학의 본원이다.²¹

송혜원은 언어내셔널리즘을 넘어서는 첫 작업으로서 재일조선인문학이 서 있는 자리를

18 宋惠媛, 앞의 책, pp.3~4

19 宋惠媛, 위의 책, p.27

20 宋惠媛, 앞의 책, p.3~4

21 宋惠媛, 위의 책, p.38

재확인하고 있다. 그녀는 이언어(異言語) 사이의 갈등을 “재일조선인문학의 본원(本源)”으로 파악한다. 일본어와 조선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재일조선인의 내적 갈등을 재일조선인문학의 불가피한 정체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일본어와 한국어 중 어느 한 쪽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두 언어 사이의 갈등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실재하는 현실 그대로의 재일조선인문학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재일조선인은 모어와 모국어가 다른 까닭에 끊임없이 언어 사용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는 저자 본인이 후기²²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재일조선인에게 언어 사용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들의 언어 의식은 언어의 국가정체성에 귀속되지 않는다.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든 언어에 내장된 내셔널리티가 재일조선인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셔널리즘과의 거리두기가 송혜원의 문학사 인식의 전략이라면 실제로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관점이 되는 것은 탈식민적 문학사 쓰기라고 명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식민적 문학사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문제의식의 소산이며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일조선인문학사의 시점을 1930년대 김사량이나 1945년 이후의 김달수로 잡을 경우, 거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일본 고등교육을 받은 ‘식민지 엘리트’·‘남성’이 쓴 ‘일본어 작품’을 기준으로 삼는 일이다. 이 잘라내기 어려운 단단하게 연결된 세 개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지 않고는 ‘일본(어) 문학’의 주목을 푸는 일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근대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복제해 온 조선인 엘리트 남성들의 동향을 쫓는 것만으로는 재일조선인문학은 정통적인 ‘일본문학’을 정점으로 한 문학의 서열화에 가담하여, 영원히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²³

저자는 재일조선인문학사가 극복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식민지 엘리트’, ‘남성’, ‘일본어 작품’을 중심에 둔 시각을 꼽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문단에서 활동하며 재일조선인의 현실을 일본사회에 전하고자 한, 김달수를 위시한 기존의 엘리트 남성문학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중심에 둔 문학사 기술은 지양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이 문학사에서 일본문단에서 활동한 재일조선인작가들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문단 내에서 재일조선인 사회를 향한 글쓰기를 수행했던 문학가들과 작품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2 “이미 이 책은 일본어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서두에 언급한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 어떤 언어로 쓰든 간에 글을 쓸 때에 느끼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필을 끝낸 지금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 정도가 아닐까?”(宋惠媛, 위의 책, p.349)

23 宋惠媛, 앞의 책, p.37

식민지 통치하에서 청년기를 보냈던 작가들이 억압되었던 조선문학의 소양을 충분히 몸에 익혔을 리 만무하다. 다만 예컨대 허남기나 이은직이 ‘해방’ 직후부터 조선어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오랜 기간 계속해 왔고, 조선어로 창작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김달수가 ‘조선문학’에 진정으로 마주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일본인 측 기대에 호응하는 형태로 ‘조선문학가’의 역할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²⁴

송혜원은 김달수의 일본어 창작활동이 일본의 기대에 호응하는 형태로 ‘조선문학가’의 역할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원준, 허남기, 이은직 등이 일본어와 조선어 창작을 병행하며 끊임없이 갈등하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여준 데 반해, 김달수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이 아닌 일본인이 원하는 조선상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달수를 비롯한 엘리트 지식인들의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일본이라는 독자이며, 일본문학계 역시 이들의 문학에 공감하며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한 인식을 정형화하고 이들 작품을 일본문학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평생을 두고 일본어 창작활동을 통해 민족을 알리는 데 매진해 온 김달수의 이력을 보았을 때, 그가 일본문학계만을 의식하고 문학을 창작하였다고는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허남기나 박원준 등은 일본어만이 아니라 조선어를 병행하며 창작활동을 통해 재일조선인으로서의 탈식민화를 수행하였으나 김달수는 일본어만을 고집함으로써 일본 지향을 내세웠다는 논리는 갈등하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여부를 창작언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송혜원 자신의 논리에도 위배된다. 또한 김달수의 작품이 일본 독자를 의식하면서 창작된 것이라고 해서 작품 내부에 일본사회에 대한 저항의지가 부재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일본어를 사용하여 재일조선인의 삶을 일본사회에 알리고자 한 김달수의 문학활동은 지배언어를 통하여 지배문화와의 비동일성을 강조하는 탈식민적 글쓰기의 한 방식인 전유²⁵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김달수에 대한 저자의 부정적 평가는 일본어로 창작된 재일조선인문학과의 거리두기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송혜원은 일본어 글쓰기를 배제하면서 이 문학사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은 ‘식민지 엘리트’ 재일조선인 ‘남성’작가가 쓴 ‘일본어 작품’을 재일조선인문학의 정전으

24 宋惠媛 위의 책, p.31

25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서 ‘전유(專有)(appropriation)’는 모국어가 아닌 타자의 언어로 모국어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호 이질적인 문화적 경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하나의 도구로 차용 및 선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66) 이러한 전유는 피식민주체인 재일조선인이 지배언어인 일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재일조선인을 “식별 가능한 타자로 인식”시킨다. 또한, “통제의 대상”이었던 재일조선인이 “민족적 재현의 주체”가 되면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통제권력”인 일본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14, pp.197~207)

로 파악하는 통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송혜원은 일본어와 조선어 작품을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조선어 글쓰기’에 대해 주목한다. 재일조선인 여성의 글쓰기에 주목함으로써 재일조선인문학을 규정하는 기존의 입장과 남성 중심의 재일조선인문학 내에서만 조명되던 기존의 여성인식에 균열지점을 만들어 내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주류를 형성해 온 재일조선인 남성작가들의 문학은 일본사회 안에서 타자 혹은 소수자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재일(在日) 인식과 민족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탈식민 담론 안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남성작가들의 문학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부로 밀려나 ‘소리 없는 목소리’나 ‘민족정체성’을 우회적으로 표상하는 존재로만 그려져 왔다. 이러한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적 인식 하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탈식민주의 이론을 주도한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 바바 등과 같은 남성이론가들에게 있어서도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문제의 핵심에 있지 않았던 만큼,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여성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 함께 가부장제사회라는 중첩된 억압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⁶ 이러한 맥락에서 송혜원이 여성들의 글쓰기에서부터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시작하는 것은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실천적 문학사 쓰기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탈식민화 양상은 크게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식자교육 참여, 글쓰기를 통한 가부장제 성 역할 극복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송혜원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조직에 의해 건설된 조선어 강습소와 조선어학교에서의 식자교육이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학습회를 자주적으로 조직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29세부터 37~8세까지의 나이로, 아이를 2명에서 5명까지 키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5명의 여성들이다. 도쿄에 거주하는 그녀들의 체험기에 따르면, “공부는 매주 화, 목, 토, 3일간,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하기로 했다. 책임자도 우리들 중에서 뽑고”, 강사도 생활이 어려우니 “한 사람이 월 200엔씩 각출하여 교통비를 주고 학습일의 저녁식사는 모두 순서를 정해서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우리 선생님 걱정은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이 지킨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생활고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지혜를 짜내었다.²⁷

송혜원은 여성들의 식자교육이 단순히 조직에 의한 타의적 활동이 아니라 여성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된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이러한 여성들의 자

26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 문화』 4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1, pp.190-191 참조

27 宋惠媛 앞의 책, pp.62-63

발적 식자학습의 배경에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단순히 어머니 혹은 아내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동시에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고 보았다.²⁸ 따라서 송혜원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식자학습을,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인 여성역할에 머물지 않고 식민지배와 여성차별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식민화의 과정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식자학습은 재일조선인 문학의 자생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 문학사에서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글쓰기는 민족정체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희생적인 여자’, ‘중재자로서의 어머니’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저항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처한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저자의 서술태도는 남성중심의 문단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던 여성들의 글쓰기를 음지에서 끌어올림으로써 종래는 재일조선인문학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송혜원은 문예작품을 비롯하여, 수기, 작문, 일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문학사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정식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당시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일조선인들의 다양한 자기표현의 목소리를 통하여 재일조선인 문학의 존재 근거를 그 내부에서 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송혜원은 탈식민화의 주체로서 여성과 그들의 글쓰기에 주목하고,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글쓰기를 문학사 안으로 끌어오고 있다. 여성의 글쓰기를 재일조선인문학의 기원으로 삼은 이 문학사 기술 방식은 식민 논리를 내면화하면서 민족 또는 국가라는 범주 안으로 재일조선인문학을 구획해왔던 엘리트 남성의 문학 권력을 전복시키며, 가부장제라는 억압 아래 사라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도 진보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경계의 위치에 있는 재일조선인문학의 다양한 글쓰기를 문학사 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문학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송혜원의 문학사에는 몇 가지 비판의 지점도 발견된다. 우선, 엘리트 남성 중심의 문학사로부터의 멀어지고자 하려는 저술 의도로 인해, 일본문학계에서 재일조선인남성 작가들의 작품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달수, 허남기, 이은직 등과 같이 민족적 정체성에 주목하여 글을 쓴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후 김달수, 김시중, 양석일 등으로 이어지는 재일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유와 인식을 작품 내에 담아낸 이들의 작품 등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이 세대를 거쳐 감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해 온 탈식민적 글쓰기의 다양한 시도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28 宋惠媛 앞의 책, p.69

온전한 재일조선인문학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일조선인남성의 문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송혜원이 복원하고자 하였던 여성의 문학사를 함께 기존의 재일조선인남성의 문학사를 통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재일조선인문학의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송혜원은 70년까지로 문학사의 종점을 정한 이유로 70년 이후 재일조선인문학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총련작가들의 일본문학계의 이동과 공화국유일사상체제로 이행하는 총련 내부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조선어 글쓰기에도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문학계에서 김시중, 김학영, 이회성, 정승박 등의 남성작가들이 일본어 활동이 활발하여지고, 나름의 입지를 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작품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은 탈식민적 전유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과 70년 이후로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왔다는 점, 이후 양석일 등과 같은 재일의 문제에 대한 새롭게 접근한 작가들의 작품을 탈식민이라는 키워드를 배제하고 읽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어로 작품을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들의 문학을 일본문학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재일조선인문학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문학계로부터의 회피와 1970년이라는 종점 설정은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이어져 온 재일조선인여성들의 문학활동과 70년대 이후 재일문학으로 불리는 제 2, 3세대 재일여성작가들의 문학활동과의 단절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양지, 유미리, 종추월 등과 같은 일본문학계에서 80~9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한 재일여성작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는 문학사의 종점을 설정한 이유는 해방 이후 25년간에 벌어진 조선어 사용을 통한 탈식민의 과정을 보여주고, ‘민족적 정체성’에 고뇌하던 1세대 재일조선인들과 ‘재일지향’의 2, 3세대 재일조선인들을 구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구획은 앞서 남성작가들과 같이 ‘재일’의 의미를 일본 사회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 내재한 탈식민의 의미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총련 내부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의 글쓰기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일본어로의 창작활동이 많아졌는데, 단순히 문학활동이 일본어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재일문학이 지닌 탈식민적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양지의 경우 유년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이와 같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갈등의 시작이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재일이라는 생활적 조건에서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년의 경험과 트라우마와 가족 해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일본 사회 전반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유미리의 문학 활동²⁹은 재일조선인문학을 민족정체성 문제에 한정시키고자 하는 일본문학계의 식민주의적 태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식민적 글쓰기의 수행으로 읽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70년대 이후 일본문학계에서 활동한 재일조선인 남성작가와 여성작가들의 작품 외에도 재일조선인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잡지들이 간행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三千里』(1972~1978), 『ちゃんそり』(1979~81), 『漢陽』(1962~84), 『民涛』(1987~1990), 『ウリ生活』(1987~1999), 『靑丘』(1989~1995), 『호르몬 문화』(1990~2000) 등을 비롯해, 재일여성동인지 『봉선화(鳳仙花)』(1991~2013), 재일여성 문예지 『땅에서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2006~2012)는 재일을 살아가는 2,3세대의 문학 지형의 변천과 주제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학사적 사료로써 재일조선인문학사가 70년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³⁰, 이들 잡지에 아이덴티티, 젠더,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한 재일조선인들 자기 서사를 담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글들은 재일조선인들의 자발적 글쓰기 수행의 결과물로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숨겨진 재일조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송혜원의 문학사 기술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29 이한창, 「80년대 이후 다양해진 재일 동포문학의 세계」, 『일본어문학』 44, 2010, pp.261-269 참조

30 고영철 「1960년대의 『한양』에 실린 소설의 문체의식 - 『한양』의 매체사회학적 위상을 중심으로」,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5 연구』(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 편), 소명출판, 2017; 김환기, 「『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22,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2014; 김환기, 「문예잡지 『三千里』와 재일코리안의 문화 정체성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104, 한국일본학회, 2015; 마경옥, 「재일 여성 문예지 『땅에서 배를 저어라』에 관한 연구 I-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8-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마경옥, 「『땅에서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에 관한 고찰II-재일 여성문예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4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박유미, 「재일여성문예지 『땅에서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 연구」, 『외국학연구』 39, 2017; 소명선, 「재일한인 에스닉 미디어의 계보와 현황 -에스닉 잡지를 중심으로」,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5 연구』(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 편), 소명출판, 2017; 신승모, 「재일 문예지 『민도(民涛)』의 기획과 재일문화의 방향 -서지적 고찰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43,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신승모, 「재일에스닉 잡지에 나타난 재일조선인의 자기서사」, 『일본연구』 62, 2014; 신승모, 「생활종합지 『우리생활ウリ生活』에 나타난 재일코리안의 일상사」, 『일본학』 47, 2018; 신재민, 「재일조선인잡지 『민도(民涛)』 연구」, 『日本學報』 15, 한국일본학회, 2018; 양명심, 「『호르몬문화(ほ르몬文化)』(1990~2000) 연구: '재일(在日) 문화의 재해석」, 『日本語文學』 75, 한국일본어문학회, 2017; 양명심, 김주영, 「재일문예 『민도(民涛)』 연구 - 『민도』의 서지고찰과 이회성의 문체의식」, 『日本語文學』 2, 한국일본어문학회, 2014; 이승진, 「1960-80년대 재일잡지미디어 지형과 재일문화」, 『일본문화학보』 81, 한국일본문화학회, 2019; 이승진, 「1990년 이후 재일잡지미디어 지형 고찰」, 『韓國民族問題研究』 37, 2019; 이승진, 「재일조선인잡지 『호르몬 문화』(ほ르몬文化) 연구-재일조선인잡지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13, 한국일본학회, 2017; 최순애, 「재일여성동인지 『봉선화(鳳仙花)』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 최범순, 「『계간 삼천리』(季刊 三千里)의 민족정체성과 이산적 상상력」, 『日本語文學』 제41집, 한국일본어 문학회, 2009.

있으며, 일시적 선긋기를 한 송혜원의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가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재일조선인문학에서 재일문학으로 이어지는 재일조선인문학의 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술 대상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송혜원의 문학사는 기존의 재일조선인문학사 인식에서 통용되던 시대구분 및 기점설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각 확보를 시도하였다. 또한 재일조선인 내부의 언어 갈등 그 자체에 주목하며, 민족/국가나 언어가 아니라 이러한 내셔널리즘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된 주변부 문학들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어와 조선어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여성들의 조선어 글쓰기를 중요한 문학사적 서술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문학사 인식과 기술 태도는 탈네이션이 곧 탈식민적 문학사 기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전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송혜원의 문학사는 재일조선인문학사 기술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적지 않은 과제도 남기고 있다. 송혜원은 재일조선인문학에 내셔널리즘을 투영하거나 창작언어에 천착하여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규명하려 했던 기존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재일조선인문학의 독자적 행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왔다는 사실에 비판적 시각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재일조선인문학을 재일조선인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기준으로 그 존재양상을 규명하려 한 내셔널리즘적 시각에 대한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재일조선인문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재일조선인문학과 재일조선인을 어느 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으로서 재일(在日)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강조하려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족/국가정체성이나 언어 그 자체는 재일조선인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부수적인 것이 된다. 언어내셔널리즘이라는 관점을 극복하려는 이러한 인식은 탈식민적 관점에서의 요청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엘리트 남성’이 ‘일본어’로 창작한 재일조선인문학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어’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였던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글쓰기를 발굴하고, 이산과 월경, 수용소 등 주변화된 비주류의 문학활동을 재일조선인문학사 안에 포함시키는 송혜원의 작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송혜원의 문학사는 미완의 문학사라는 점에서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조선어’와 ‘일본어’를 오가며 이 언어(異言語)의 갈등 속에서 창작했던 재일조선인들의 작품에 초점을 두다 보니, ‘재일’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 7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문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송혜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70년대 이후는 일본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세대가 조선어를 의식하지 않고 일본어 창작을 해왔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문학사에서 배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나 자신은 재일조선인 2세이고 모어는 일본어지만 일본어가 옛 지배자의 언어였다는 것, 원래 모어였어야 할 조선어를 태생적으로 박탈당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³¹는 서경식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어를 모어로 인식하면서 문학활동을 이어 간 2, 3세대 재일조선인 작가들에게도 자신들의 언어사용이 내적 갈등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이들 작가와 작품을 재일조선인문학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즉, 7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의 삶과 문학 또한, 또 다른 형태의 탈식민적 양상이라는 점에서 이후 재일조선인문학사는 이를 어떻게 통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탈식민적 문학사 서술은 여전히 하나의 열린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연구대상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pp. 1~384

단행본

- 김종희 외, 『한민족 문학사 2』, 역락, 2015, pp.1~436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pp.1~523
 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pp.1~620
 서경식, 권혁태 역 『언어와 감옥에서』, 돌베개, 2011, pp.1~472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pp.1~244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재일 동포 문학과 디아스포라』 3, 제이앤씨, 2008, pp.1~330
 천정환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한국토지문화재단,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2003, pp.1~294
 한승옥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민족문화적 성격연구』, 국학자료원, 2007, pp.1~491
 홍기삼 편, 『재일 한국인문학』, 솔, 2001, pp.1~328
 安宇植, 「在日朝鮮の文学」, 『岩波講座 日本文学史』 第14卷, 岩波書庫, 1997. pp.139~164
 林浩治, 『戦後非日文学論』, 新律社, 1997, pp.1~227
 Ashcroft Bill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p.1~316
 Homi K.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12, pp.1~543
 Rosalind C. Morris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pp.1~544

논문

- 고명철, 「1960 년대의 『한양』 에 실린 소설의 문제의식 - 『한양』 의 매체사회학적 위상을 중심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선집 5 연구』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벌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 편), 소명출판, 2017, pp.97~126
 고봉준,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기억’과 ‘망각’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연구, 2008, pp.7~34.

31 서경식, 『언어의 감옥에서』, 돌베개, 2012, p.48

-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 문화』 4-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1, pp.167-203.
- 김환기, 「『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22,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2014, pp.155-177
- 「문예잡지 『三千里』와 재일코리안의 문화 정체성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104, 한국일본학회, 2015, pp.135-152
- 마경옥, 「재일 여성 문예지 『땅에서 배를 저어라』에 관한 연구 I-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8-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pp.297-314
- 「『땅에서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에 관한 고찰II ‘재일’ 여성문예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4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pp.137-156
- 박유미, 재일여성문예지 『땅에서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 연구, 『외국학연구』 39, 2017, pp.343-363
- 소명선, 「재일한인 에스닉 미디어의 계보와 현황 -에스닉 잡지를 중심으로」,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5 연구』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벌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 편), 소명출판, 2017, pp.271-314
- 신승모, 「재일문예지 『민도(民濤)』의 기획과 재일문화의 향방 -서지적 고찰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43,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pp.79-100
- 「재일에스닉 잡지에 나타난 재일조선인의 자기서사」, 『일본연구』 62, 2014, pp.79-89
- 「생활종합지 『우리생활ウリ生活』에 나타난 재일코리안의 일상사」, 『일본학』 47, 2018, pp.115-135
- 신재민, 「재일조선인잡지 『민도(民濤)』 연구」, 『日本學報』 15, 한국일본학회, 2018, pp.193-212
- 양명심, 「『호르몬문화(ほ르몬文化)』 (1990~2000) 연구: ‘재일(在日) 문화’의 재해석」, 『日本語文學』 75, 한국일본어문학회, 2017, pp.273-292
- 양명심, 김주영, 「재일문예 『민도(民濤)』 연구 - 『민도』의 서지고찰과 이회성의 문제의식-」, 『日本語文學』 2, 한국일본어문학회, 2014, pp.369-394
- 엄미옥,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언어경험 양상 -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1, 한민족문화학회, 2012, pp.235-267
- 윤송아, 「이언어(二言語)의 장(場)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들의 향연 -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学史』의ために - 一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 『일본학』 42,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pp.241-252
- 이승진, 「재일한국인 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 在日韓国人文学における‘女性像’ - 二・三世作家の作品を中心に」, 『일본문화연구』 3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pp.449-469
- 「1960~80년대 재일잡지미디어 지형과 재일문화」, 『일본문화학보』 81, 한국일본문화학회, 2019, pp.27-53
- 「1990년 이후 재일잡지미디어 지형 고찰」, 『韓國民族問題研究』 37, 2019, pp.135-168
- 「재일조선인잡지 『호르몬 문화』 (ほ르몬文化) 연구 -재일조선인잡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13, 한국일본학회, 2017, pp.123-142
- 이한창, 「재일 교포문학의 작품성향 연구-정치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p.1~150
- 「재일 교포문학의 주제연구」, 『日本學報』 29, 한국일본학회, 1992, pp.307-337
- 최순애, 재일여성동인지 『봉선화(鳳仙花)』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 pp.169-228
- 최범순, 「『계간 삼천리』 (季刊 三千里)의 민족정체성과 이산적 상상력」, 『日本語文學』 41, 한국일본어 문학회, 2009, pp.397-420
- 布袋敏博, 「해방 이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47, 2002, pp.79-104

(帝塚山学院大学リベラルアーツ学科)

y-pan@tezuka-gu.ac.jp

韓国語教育研究（第11号）

2021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勾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